

‘창동역 민자역사’ 회생절차… 사업재개 여부 5월 판가름

16년간 시공사 3번 교체 흉물방치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 약 1000억 청산해야 회생
HDC현산·DL이앤씨 시공에 관심

‘서울 도심 대표흉물’로 남아 있는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청 건축정책팀 관계자는 9일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채권자들에게 대한 채권금액을 청산하는 게 가장 큰 과제로 회생절차는 오는 5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서 정한 채권금액은 약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게 도봉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사가 중지되면서 분



공사중단으로 골조만 남은 채 방치된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현재 개발 재개를 위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연우 기자

양 받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채권,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권금액을 청산해야 회생이 가능하다. 현재 창동민자역사에 대한 안전진단은 거의 끝마친 상태로 최종 보고서 작성만 남아 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5월 중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시공사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DL이앤씨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HDC현대산

업개발은 지난 2019년 시행사인 창동역 사측에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 인수계약을 조건부로 해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얻고 600억원 규모의 인수대금을 준비했지만 분양 피해자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비중이 45% 수준에서 머물자 계약 철회를 결정했다.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은 지하2층~지상 10층 규모로 판매·문화시설을 짓는 사업이지만, 지난 2005년 시작된 이후 시행사가 파산하고 시공사가 세 번 교체되는 등 난항을 겪으며 공사가 중단돼 16년째 골조만 남아 있어 서울을 대표하는 흉물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곳은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도 없어 투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수차례 발생했다. 창동역 민자역사 개발사업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포함됐기 때문

이다. 사업과 함께 스크린도어 설치 미뤄지는 동안 지난 현재까지 창동역에서 발생한 투신사고는 총 10건에 달한다. 서울시 지하철 역사 중에서 스크린도어가 없는 곳은 1호선 창동역이 유일하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스크린도어 설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오는 3월부터 착공해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하철 1·4호선 창동역은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 화재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이 있다. GTX-C노선은 수원·금정·정부과천정사·양재·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덕정역 등 10개역을 계획중이며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시작해 의정부역을 거쳐 창동역과 청량리역, 삼성역 등에 이어 경기도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74.8km의 철도노선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이통3사, 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논의해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기로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초년생도 30만원 소액후불결제 가능

금융위, 디지털금융 협의회
비금융 데이터활용 한도부여

앞으로 신용정보가 없던 금융취약계층은 전자상거래 실적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30만원 한도로 플랫폼에서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아직 빅테크의 소액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허용한다.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30만원 한도로 전자상거래 실적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한도를 부여하는 서비스다.

현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가 제공하려는 후불결제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결제서비스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이 마이너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정보원 등 마이너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마이너데이터 기업은 규모·역량과 관계없이 마이너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중계기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한정된 인력·IT자원을 마이너데이터 역량에 집중하게 한다.

마이너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정보를 받기 위해선 일일이 인증절차를 받아야 했다. 통합인증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업자가 정보 전송을 요청하면 전 금융권에 대해 통합적으로 인증·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법적근거가 미약해 적극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범위에 디지털 산업 발달에 따른 다양한 핀테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26일 AZ백신 접종… 고령자 투약 오늘 결정

(아스트라제네카)

질병관리청, 24일 출하 후 개별포장
초도물량 75만명분… 전체의 7.5%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구체적인 접종시기가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4일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돼 경기 평택 물류센터에서 개별 포장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급이 시작되면 가장 빠른 곳에는 26일경 도착해 순차 접종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해 24일부터 한국 정부에 인도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초도 물량은 75만명분이다. 개별 선구매 계약으로 확보한 전체 1000만명분의 7.5%다.

SK(주), 주당 7000원 배당 ‘주주 친화정책’

총액 3700억 전년비 1020억 늘어

SK(주)가 주당 7000원을 배당기로 했다. SK(주)는 9일 이사회를 열고 기말배당을 6000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중간배당으로 주당 1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같은 연간 배당은 2015년 출범 이후 최대다. 총액도 3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0억원이나 늘었다.

SK(주)는 2018년 중간배당 이후 꾸준히 주주가치 제고에 힘써왔다. 연간배당 총액도 2016년 2090억원에서 4년만에 77%나 늘었다.

물류센터에서 25일 보건소 등 접종기관으로 백신이 배송되면 26일부터 위탁 의료기관 등에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질병청은 보고 있다.

애초 추진단이 계획한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 50만6300명과 종사자 27만600명 등 77만6900명이다. 병원 등 의료진이 있는 시설에는 자체 접종을 하고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노숙인 이용시설 등에는 보건소 방문팀이 방문접종을 진행한다. 이외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추진단은 백신 초도 물량 접종 대상자와 기관 등을 오는 19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은 물론, 만 65세 이상 접종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접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데 이어, 스위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

용을 보류하며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식약처는 10일 오전 10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연다. 식약처 법정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지난 5일 만 18세 이상 접종을 하되 사용상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미국 임상시험 결과 분석 자료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질병청은 “아직 1분기 접종 계획에 변동은 없지만 고령층 접종이 제한될 경우 요양시설 고령자 입소자 접종 일정에 대해서는 향후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위원단 검토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식약처 허가가 결정되는 대로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만 65세 이상 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조현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관하는 ‘ESG우수기업’ 평가에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A등급 이상을 기록하고, 지난해 11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2년 연속 복합기업군 분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주주권 보호와 사회적 가치 증진 측면에서도 모범적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SK(주) 관계자는 “대의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SK(주)는 4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중심의 사업모델 혁신과 투자 수익 실현을 통한 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으로 회사 성장과 주주가치 확대를 함께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